

이차분석 :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이 명 선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일차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연구질문에 답하는 분석을 이차분석이라고 하며, 이는 양적자료의 이차분석과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양적자료의 이차분석은 미국 등 외국의 간호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소개된 이후(Gleit & Graham, 1989; McArt & McDougal, 1985; Lobo, 1986) 그 타당성이 확립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방법론적 타당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Hinds, Vogel, & Clarke-Steffen, 1997; Steeves, Kahn, & Cohen, 1996;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에 대한 논의가 양적연구보다 늦게 시작된 이유는 물론 질적연구방법의 수용이 양적연구방법보다 늦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이차분석을 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두 연구방법간의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방법론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의 차이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양적연구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론으로부터 연역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질적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현상의 중요한 변수나 주제를 “발견”하고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도 발견지향적 연구로서 검증을 목표로 하는 양적연구의 이차분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이차분석’이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연구로 간주해 왔다(Glaser & Strauss, 1967).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질적연구에서도 하나의 연구 자료로 두 개 이상의 결과를 낼 때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차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Thorne, 1994). 그 이후 일부에서 서서히 일차자료를 이용한 질적연구를 발표할 때 “이차분석” 연구임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질적연구방법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이후 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쌓인 질적 자료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이차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Yi(2003)는 이차분석의 장점과 단점,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립 전략, 그리고 접근방법 등을 탐구함으로써 질적연구에서 이차분석의 역할과 잠재력을 명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글에서는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특성과 함께 장단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이차분석을 이용하여 발표된 질적연구를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이차분석연구의 위치와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장단점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장점

주요어 : 질적연구; 이차분석

1) 간호학 박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3년 6월 23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6일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일차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을 생산함으로써 간호지식체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차분석은 일차연구의 맥락에서는 자세히 분석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나타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자료로부터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목표를 둔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Thorne(1994, 1998)은 이를 “소급적 해석(retrospective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차분석은 (실체)이론이나 개념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도 한다(Hinds et al., 1997; Steeves et al., 1996;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즉 기존의 자료를 고차원의 분석으로 끌어올려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히 이론개발에 재능이 있는 연구자가 연구현상에 몰입되기 보다는 거리두기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분석할 때 유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차분석은 일차표본의 범주를 넘어서서 새로운 연구결과나 새로운 유형을 검증하기 위하여(Thorne, 1994, 1998), 혹은 여러 개의 이론적으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넓은 이론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이 간호지식체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잇점 이외에도, 이차분석은 자료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Yi, 2003). 질적연구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연구현장에 가깝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신뢰관계 확립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유지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수집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서도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차분석은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차분석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의 질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질적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나온 풍부한 자료이므로 연구자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Glaser & Strauss, 1967). 따라서 질적연구에서는 일차연구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혹은 일부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면, 근거이론에서는 핵심범주가 하나 이상 나올 경우 각각의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Glaser와 Strauss는 한 현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Awareness of dying(1965)"과 "Time for dying(1968)"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Steeves 등(1996)은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을 중

심으로 이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일차연구와는 달리, 이차분석에서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실제이론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또 다른 독특한 장점은 연구자가 자료에 얽매이지 않고 좀더 공평하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를 도구로 간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료의 몰입과 거리두기 기술이다(Glaser & Strauss, 1967; Patton, 1990). 대부분 일차연구자는 자료에 얽매이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인류학에서는 ‘현주민 되어가기 (going native)’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자료에 몰입하다 보면, 질적연구의 목표가 되는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중재하는 해석적인 연구’(Agar, 1986)가 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자는 일차자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나타나는 직관의 견지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은 연구대상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Szabo & Strang, 1997). 간호학은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연구자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차분석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중요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제한점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은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때, 이차분석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이 확립될 수 있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제한점에 관한 이슈는 크게 자료 자체의 풍부성, 자료의 접근성, 분석절차 따르기의 제한성, 그리고 윤리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자체의 풍부성과 관련된 제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차자료는 일차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도출된 자료를 이용하므로, 이는 이차분석을 위한 연구질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그런데 양적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질적연구의 커다란 장점의 하나는 풍부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료에 대한 높은 신뢰성이 질적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참여자가 실제로 살고 느낀 경험을 발견함으로써 확립되어진다. 그러나 이차분석을 위한 연구질문과 일차자료와의 차

이가 크면 클수록 일차연구 자료는 이차분석에 적합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신뢰성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이차분석 연구방법이 일차 연구방법과 서로 다르게 되면, 이는 결국 적합한 자료를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연구결과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잘 알려진대로 연구방법은 패러다임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각 방법마다 자료 수집과 구축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단서, 의미 형성과정 등이 다르게 된다(Wilson & Hutchinson, 1991). 현상학적 연구인 경우에는 연구질문이 “이 현상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의 구조와 본질은 무엇인가?”인 반면,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이 집단 사람들의 문화는 무엇인가?”이고 근거이론에서는 “이 집단 사람들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떤 공통된 심볼과 이해를 창출해 내는가?”이다(Patton, 1990). 따라서 같은 영역 내의 연구라도 연구방법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료를 도출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차분석 연구방법이 일차의 것과 많이 다르게 되면, 자료가 연구방법에 따라 받은 영향을 무시하게 되거나, 분석자 나름대로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결국 이차분석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개입될 소지가 크게 된다.

세째,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이 일차연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일차연구에서 도출된 자료 자체가 풍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세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직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민감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질적연구방법의 핵심적인 절차에 속한다(Glaser, 1978; 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측면이나 범주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표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요하거나 흥미있는 자료들은 마지막 분석에서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 연구자가 창출되는 중요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차자료는 이차분석을 위한 자료로서는 빠진 자료가 많아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부 현상학적 분석방법(Colaizzi, 1978)도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자료수집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지니게 된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은 일차자료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Hinds et al., 1997; Thorne, 1994; Yi, 2003). 면담과 참여관찰에 관한 테이프와 필사본 이외에 메모 등 일차연구에 이용된 모든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차분석에서는 자료에 영향을 주었을 요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이차분석자의 편견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Thorne, 1994). 자료뿐 아니라 일차연구자에 대한 접근성도 문제가 될 수 있

다. 즉, 자료에 대한 배경, 맥락, 단서 등 의문이 생길 때, 이를 일차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되면 이차분석자의 편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자료 이차분석의 또 다른 제한점은 자료분석 방법을 철저히 따르기 어렵다는 점이다(Szabo & Strang, 1997). 일반적으로 질적연구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연구가 조정되고,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절차와 도구는 현상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되면서 발견의 행로를 따라 개념이 창출된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차분석연구에서는 주로 기존의 자료만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거이론의 경우 창출되는 범주가 포화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포화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차분석에서는 이론적 포화가 기존의 자료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실제이론 창출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은 윤리적 문제도 종종 따르게 되는데(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이는 일차연구가 끝난 후에야 일차연구 결과에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로 부터 미리 이차분석 연구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매우 민감한 연구질문이 이차분석에서 제기되는 경우 연구참여자의 인권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이차분석의 이러한 제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Hinds et al., 1997; Szabo & Strang, 1997; Thorne, 1994, 1998; Yi, 2003). 이를 통하여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을 확립할 수 있고, 따라서 간호지식체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질적자료의 이차분석 연구논문 분석

자료 수집

질적자료의 이차분석 연구논문을 얻기 위하여 1982년부터 2003년 4월 3째 주까지의 CINAH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주요어는 다양한 연구방법과 “secondary analysis”를 “and”로 합하여 추출하였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action research, analytic research, applied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case studies, clinical research, comparative studies, descriptive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ethnonursing research, evaluation research, exploratory research, field studies, grounded theory,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ical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validation studies 등으로서 질적연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기준은 발표 연도, 연구 방법, 그리고 Yi(2003)가 제시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유형을 이용하였다.

- 특정 대상자에 초점: 일차연구 표본의 부분 집단을 추출하여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
- 특정 개념에 초점: 일차연구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혹은 일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 넓은 맥락과 견해 이용: 기존의 개별연구로부터 나온 자료를 보다 넓은 맥락이나 견해에서 탐구하는 접근방법
- 추가 자료 이용: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직감, 가설 혹은 연구질문을 창출한 후,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수집하는 방법
- 다른 분석단위 이용: 일차분석에서 사용한 분석단위와는 다른 단위를 이차분석에서 이용하는 방법

그 외에 일차연구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논문을 일차연구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는 하나의 자료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차별성과 함께 관련성을 보여주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다양한 연구방법과 “secondary analysis”를 “and”로 합하여 추출한 논문 중에서 질적연구 논문만을 선택한 결과 총 29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992년에 처음으로 질적자료 이차분석연구가 발표되었으며, 1997년 이전까지는 1편 정도에 머물다가 그 이후 매년 2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이차분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2년 2편, 1995년과 1996년에 각 1편이 발표되었다, 1997년에 2편, 1998년에 5편, 1999년에 7편, 2000년에 4편, 2001년에 5편, 2002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연구방법 중에서 9가지가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에 이용되었다. 그 중에서 근거이론을 이용한 이차분석연구가 11편(37.9%)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상학적 연구로 6편(20.7%)이었다. 그 외에 탐색적 연구가 3편, 문화기술적 연구, 케이스 연구, 그리고 현장연구가 각 2편, 실천연구, 역사적 연구, 그리고 검증연구는 각 1편이 발표되었다.

접근유형별로 이차분석 논문을 분류한 결과 개념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참조).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9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넓은 맥락이나 견해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5편, 그리고 추가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단위를 달리 한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일부 연구는 하나 이상의 접근 유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Acton 등 (1999)은 특정한 참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분석단위를 달리한 접근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Irurita와 Williams(2001)의 연구도 넓은 맥락과 견해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석단위로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Gerrish의 연구는 추가자료와 함께 특정 시기를 뛰어 넘는 보다 넓은 견해에서 특정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접근 유형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접근유형별로 나타난 이차분석 논문들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일차연구와 관련지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특정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

특정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이차분석 연구는 9편으로서 7가지의 질적연구방법에서 나타났다. 실천연구(action research)에서 Mohr(1998)는 정신과 환자로부터 정신병동에서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한 일차연구의 표본 중에서 전형적인 케이스를 선정하여, 이를 Park(1993)이 제시한 참여연구로 설계한 후,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상호작용 과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케이스 연구에서는 2편이 이 유형에 해당되었는데, Rehm과 Catanzaro(1998)는 23개의 만성질환자 가족으로부터 나온 자료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부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 중 한명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가는가를 상징적 상호교섭론의 이론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erembus, Wolf, 그리고 Youngblood(2001)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약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요원들의 심각한 투약사고에 대한 반응과 우려에 초점을 맞춘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사망사고를 낸 11명의 의료요원들로부터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투약사고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탐색적 연구에서 Guberman(1999)은 반구조적 면담을 통하여 나온 돌봄제공자에 대한 세 편의 기존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일부 여성이 시댁식구의 돌봄제공자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이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장연구에서 Acton 등(1999)은 돌봄제공자와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치매환자의 의사소통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Table 1> Qualitative Secondary Researches by Types of Approach

Type of Approach	Title of Research (Author, Year of Publication)
Focusing on specific participants(31.0%)	1) Violence against ex-wives: Anger and advocacy (McMurray, 1997) 2) Unexpected outcomes of childhoo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Mohr, 1998) 3) "It's just a fact of life": Family members' perceptions of parental chronic illness (Rehm & Catanzaro, 1998) 4) Communicating with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impaired person's perspective (Acton, Mayhew, Hopkins, & Yauk, 1999) 5) Male caregivers' use of formal support (Coe & Neufeld, 1999) 6) Daughter-in-law as caregivers: How and why do they come to care? (Guberman, 1999) 7) Interdisciplinary geriatric teams: Experiences of Alzheimer's family caregivers (Liken, 1999) 8) Facilitating day-to-day decision making in palliative care (Bottorff et al., 2000) 9) "The problem" of student nurses of Japanese ancestry during World War (McKay, 2002)
Focusing on specific concept(51.7%)	1) Nursing diagnosis in an oncology population (MacAvoy & Moritz, 1992) 2) Ethical concern in a long-term tube feeding study (Wilson, 1992) 3) Alternative therapies as control behaviours used by cancer patients (Montbriand, 1995) 4) Patients' perspectives of fatigue while undergoing chemotherapy (Messias, Yeager, Dibble, & Dodd, 1997) 5) The meaning of peak and nadir experiences of pediatric oncology nurses: Secondary analysis (Clarke-Steffen, 1998) 6) Preoperative anxiety in women (Wiens, 1998) 7) Experiencing control in caregiving (Szabo & Strang, 1999) 8) Pregnancy and the maintenance of self-identity: Implications for antenatal care in the community (Earle, 2000) 9) Still fumbling al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ly qualified nurse's perception of the transition from student to qualified nurse (Gerrish, 2000) 10) Hoping to maintain a balance: The concept of hope and the discontinuation of anorexiatic medication (Volume & Farris, 2000) 11) The experience of caring for a family member with Alzheimer's disease (Butcher, Holkup, & Buckwalter, 2001) 12) Relationship development among chronically ill women in 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 (Hrabe, 2001) 13) Impact of rural living on the experience of chronic illness (FitzGerald, Pearson & McCutcheon, 2001) 14) Consequences of fatal medication errors for health care providers: A secondary analysis study (Serembus, Wolf, & Youngblood, 2001) 15)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Experiences with augmentative communication devices (Dickerson, Stone, Panchura, & Usiak, 2002)
Wider context or perspectives(20.7%)	1)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ies who have memb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ux & Seideman, 1996) 2) Family coping with mental illness: An aggregate from two studies, Canada and United States (Yamashita & Forsyth, 1998) 3) Nursing presence: As real as a Milky Way bar (Doona, Chase, & Haggerty, 1999) 4) Meal procedures in institutions for elderly people" A theoretical interpretation (Sidenvall, 1999) 5) Still fumbling al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ly qualified nurse's perception of the transition from student to qualified nurse (Gerrish, 2000) 6) Balancing and compromising: Nurses and patients perserving integrity of self and each other (Irurita & Williams, 2001)
Additional data collection (3.4%)	1) Still fumbling al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ly qualified nurse's perception of the transition from student to qualified nurse (Gerrish, 2000)
Different unit of analysis (6.9%)	1) Communicating with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impaired person's perspective (Acton et al., 1999) 2) Balancing and compromising: Nurses and patients perserving integrity of self and each other (Irurita & Williams, 2001)

근거이론 연구에서 Coe와 Neufeld(1999)는 공식적인 지지에 대한 돌봄제공자들의 견해를 연구한 일차연구 자료에서 남자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어 이차분석하였다. Liken(1999)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돌봄제공자에 대한 일차연구 자료 중에서 최근 요양시설로 보내진 환자의 돌봄제공자의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이차분석하였다.

역사적 연구에서 McKay(2002)는 이차대전 중에 Wyoming 주 수용 캠프에 재배치된 미국 거주 일본인 2세 24명의 여성의 삶을 탐구한 일차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차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 당시 간호대 학생이었다가 수용 캠프에 재배치된 여

성 4명의 이야기를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2편의 논문이 특정 대상자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cMurray(1997)은 호주의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일차자료를 이용하여 자녀를 보호할 후견인을 얻지 못한 별거 부모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차분석하였다. Butcher 등(2001)은 103명의 다양한 알츠하이머질환 가족원의 간호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특히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자료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간호중재의 효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4년간의 종적 연구로부터 나온 면담자료를 이용하였다.

- 특정 개념 혹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특정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총 15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도 6가지로 나타났다. 탐색적 연구에서 Wislon(1992)은 차트 리뷰로부터의 자료를 이차분석을 이용하여 위관 영양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윤리적 질문을 이차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Clarke-Steffen(1998)은 소아 종양간호사들의 업무역할을 탐구하여 이들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가를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탐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소아 종양간호사들의 심각한 의미의 범주를 찾기 위하여 계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Montbriand(1995)는 입원기간 동안 암환자들이 선택하는 대체요법의 의사결정 유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Gladwin(1989)이 제시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나무모형 방법(ethnographic decision tree modeling methodology)을 이용하여 나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차연구의 첫 단계는 질적연구 단계로서 문화기술적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이차 단계에서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연구 시기를 거쳤다. 이차분석에서는 암환자의 대체요법은 자신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통제이론'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장연구에서 Wiens(1998)는 여성의 수술 전반의 경험에 대한 일차연구에서 특히 여성의 수술 전 불안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차분석에서 여성에서의 수술 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견해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11편의 이차분석 논문 중에서 7편의 논문이 특정한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타났다. Messias 등(1997)은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받는 환자들의 경험에 관한 일차연구 자료에서 피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차분석하였다. Szabo와 Strang(1999)은 치매환자 가족원 경험에 관한 일차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원으로서 지각하는 통제의 경험

을 기술하고자 이차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통제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간호를 관리할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Bottorff 등(2000)은 완화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일상의 선택 과정을 탐구한 일차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이 이 간호에서 환자의 참여를 지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이차분석을 진행하였다. Earle(2000)은 19명의 초임여성 경험에 관한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차분석 연구에서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이 기간 동안의 자아정체성 유지와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Volume과 Farris(2000)는 식욕저하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인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여성의 체중감소 시도에서 희망이 차지하는 역할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Hrabe(2001)는 15명의 만성질환 여성들이 상호 교환한 22주 동안의 텍스트 메시지를 자료로 이용하였는데, 이차분석에서는 컴퓨터-중재 지지 집단에서 관계개발의 시기와 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Gerrish(2000)도 영국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전환과정의 경험을 연구한 일차 자료와 함께 25명의 신규간호사들로부터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일차연구에서 나온 주제 중의 하나인 '서툴게 일하기(fumbling along)'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이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특정 개념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나타났다. FitzGerald 등(2001)은 호주 시골에 사는 만성질환자의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호주 시골에 사는 것이 만성질환 경험에 주는 특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Dickerson 등(2002)은 기술 전이에 관한 재활공학 연구를 웹에 기초한 초점집단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기술 전이에 관한 일차연구에서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기계에 대한 소비자의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이차분석에서는 AAC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미와 공유된 경험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이데거식 해석학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검증연구에서는 MacAvoy와 Moritz(1992)가 종양환자를 위한 간호진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8명의 종양환자의 간호기록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이차분석하였다.

- 넓은 맥락과 견해로 분석한 연구

일차연구보다 넓은 맥락과 견해로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는 총 6편으로서 3가지 연구방법에서 나타났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Sidenvall(1999)은 장기의료기관에서의 노인을 위한 음식과 관련된 참여관찰과 문화기술적 면담을 통하여 얻은 일차 자료를 다양한 이론 (Goffmans' theory of institutionalized

culture, Elias' theory of civilization, Douglas' theory of purity and order, Bourdieus' key-concpet 'habitus')을 이용하여 새롭게 자료를 해석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Faux와 Seideman(1996)이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과 발달장애 성인의 가족 두 편의 연구 자료를 합쳐서 이차분석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큰 맥락에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Gerrish(2000)는 1985년도에 수행된 일차 자료와 1998년에 수집된 자료를 합쳐서 한 시대를 초월하여 통합하기 위한 이차분석 연구를 시도하였다. Irurita와 Williams(2001)도 근거이론 연구에서 높은 질의 간호 현상에 대하여 하나는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각각 연구한 후, 이 두 자료를 합쳐 급성 간호 병원세팅에서의 간호전달 경험에 대한 간호사와 환자의 통합된 견해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는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확장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Yamashita와 Forsyth(1998)은 친척의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된 두 개의 연구 자료를 합하여 보다 넓은 맥락에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하여 이차분석을 시도하였다. Doona 등(1999)은 간호판단에 관한 세 편의 개별연구로 부터 나온 자료를 넓은 견해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이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의미와 현상은 개별 연구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 추가 자료를 이용한 연구

추가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는 근거이론연구 1편으로 나타났다. Gerrish(2000)는 1985년 영국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일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Gerrish는 전환과정 동안의 간호교육이 간호사 역할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1998년 수행된 이차연구에서는 그동안 교육의 많은 개선과 정책 변화 등이 간호사 역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1985년 자료와 함께 25명의 신규간호사들로부터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일차연구에서 나온 주제 중의 하나인 '서툴게 일하기(fumbling along)'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차분석을 시도하였다.

5. 다른 분석단위를 이용한 연구

다른 분석단위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는 현장연구와 근거이론연구에서 각각 1편씩 나타났다. 현장연구에서 Acton 등(1999)은 돌봄제공자와 치매환자를 한 쌍으로 하여 이들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치매환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Irurita와

Williams(2001)가 높은 질의 간호 현상에 대하여 하나는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각각 연구한 후, 이 두 자료를 합쳐 급성간호 병원세팅에서 간호전달 경험에 대한 간호사와 환자의 통합된 견해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확장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질적자료가 쌓여감에 따른 효율적 이용에 대한 질적연구자들의 관심 증대 뿐 아니라 이차분석이 지식체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총 29편의 논문 중에서 근거이론이 가장 많은 이유(37.9%) 중의 하나는 근거이론연구 자체가 간호계에 많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이외에도, 하나의 자료세트에서 여러 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상학적 연구가 많은 이유(20.7%) 중의 하나도 현상학적 연구 자체의 숫자가 많은 것과는 관련되어 있지만, 현상학자인 Steeves 등(1996)이 기존 자료를 실체이론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과는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이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질적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물론 실천연구, 검증연구, 그리고 역사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방법뿐 아니라 자료에 있어서도 면담이나 참여관찰 이외에 차트나 웹에 기초한 텍스트 등을 이용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접근방법별로 보면 개념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가장 많은 부분(51.7%)을 차지하였다. 이는 일차자료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나 아직 탐구되지 않은, 개념(예를 들면, 통제, 희망, 피로 등)에 미리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가능하며, 대부분의 질적연구자들은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직감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접근법이 많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거이론연구에서 많은 부분이(7편)이 특정 개념에 초점을 맞춘 유형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접근방법은 특정한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것(31.0%)이었다. 이는 주로 일차연구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차분석에서는 특정한 대상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성별, 역할 등 기존의 인구학적 분류 이외에도 특정한 경험자, 예를 들면 최근 노인을 요양시설에 보낸 가족원(Liken, 1999), 등의 특성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넓은 견해나 맥락에서 접근한 이차분석 연구는 6편 (20.7%)이었다. 이 연구들은 자료 자체를 통합함으로써 맥락이 한 국가에서 두 개의 국가로 넓어지기도 하고(Yamashita & Forsyth, 1998), 혹은 특정한 한 가족에서 더욱 일반적인 가족(Faux & Seideman, 1996)으로 맥락을 넓힘으로써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는 시대 혹은 시기를 초월하여 통합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Gerrish, 2000)도 진행되었고, 다양한 이론을 이용하여 보다 통합된 견해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것(Sidenvall, 1999)도 볼 수 있었다.

분석단위를 달리 하여 접근한 이차분석 연구는 두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두 개 이상의 연구 자료를 합친 후, 한 쌍을 분석단위로 하거나 (Iurita and Williams(2001) 혹은 한 쌍을 대상으로 한 일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것(Acton et al., 1999)을 볼 수 있었다.

추가자료를 이용한 접근 유형은 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차분석이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추가자료 이용이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추가자료를 이용한 접근은 질적자료의 이차분석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제한점, 예를 들면 자료분석 절차를 철저히 따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검증을 얻지 못한다는 점 등의 많은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추가자료 이용은 이차분석 연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분석의 한 가지 제한점으로는 위에서 추출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은 논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질적연구자들은 하나의 자료로부터 두 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두 번째 이후의 것을 이차분석이라고 발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Hinds 등(1997)에 의하면 Deatrick, Knafl, 그리고 Guyer(1993)은 가족을 분석단위로 연구한 일차연구와는 달리 이차분석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나 이를 이차분석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차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는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Thorne(1998)은 이차분석을 간호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기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치있는 기존의 질적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지식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gar, M. H. (1986). *Speaking of Ethnograph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cton, G. J., Mayhew, P. A., Hopkins, B. A., & Yauk, S. (1999). Communicating with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impaired person's perspective. *J Gerontol Nurs*, 25(2), 6-13.
- Bottorff, J. L., Steele, R., Davies, B., Porterfield, P., Garossino, C., & Shaw, M. (2000). Facilitating day-to-day decision making in palliative care. *Cancer Nurs*, 23(2), 141-50.
- Butcher, H. K., Holkup, P. A., & Buckwalter K. C. (2001). The experience of caring for a family member with Alzheimer's disease. *West J Nurs Res*, 23(1), 33-55.
- Clarke-Steffen, L. (1998). The meaning of peak and nadir experiences of pediatric oncology nurses: secondary analysis. *J Pediatric Oncol Nurs*, 15(1), 25-36.
- Coe, M., & Neufeld, A. (1999). Male caregivers' use of formal support. *West J Nurs Res*, 21(4), 568-88.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Deatrick, J. A., Knafl, K. A., & Guyer, K. (1993). The meaning of caregiving behaviors: Inductive approaches to family theory development. In S. L. Feathan, S. B. Meister, J. M. Bell, & C. L. Gillis (Eds.), *The nursing of families: Theory/research/education/practice* (pp. 38-45). Newbury Park, CA: Sage.
- Denzin, N. K. (1989). *Interpretative interactionism*.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Dickerson, S. S., Stone V. I., Panchura C., & Usiak, D. J. (2002).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Experiences with augmentative communication devices. *Rehabil Nurs*, 27(6), 215-20.
- Doona, M. E., Chase, S. K., & Haggerty, L. A. (1999). Nursing presence: As real as a Milky Way bar. *J Holist Nurs*, 17(1), 54-70.
- Earle, S. (2000). Pregnancy and the maintenance of self-identity: Implications for antenatal care in the community. *Health Soc Care Community*, 8(4), 235-41.
- Faux, S. A., & Seideman, R. Y. (1996).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ies who have memb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 Fam Nurs*, 2(2), 217-38.
- FitzGerald, M., Pearson, A., & McCutcheon, H. (2001). Impact of rural living on the experience of chronic illness. *Aust J Rural Health*, 9(5), 235-40.
- Gerrish, K. (2000). Still fumbling al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ly qualified nurse's perception of the transition from student to qualified nurse. *J Adv Nurs*, 32(2), 473-80.
-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The Sociology Press.
- Glaser, B., & Strauss, A. (1965). *Awareness of dying*. Chicago: Aldine.
- C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Claser, B., & Strauss, A. (1968). *Time for dying*. Chicago: Aldine.
- Cladwin, C. H. (1989). *Ethnographic decision tree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leit, C., & Graham, B. (1989). Secondary data analysis: A valuable resource. *Nurs Res*, 38(6), 380-381.
- Guberman, N. (1999). Daughters-in-law as caregivers: How and why do they come to care? *J Women Aging*, 11(1), 85-102.
- Hinds, P. S., Vogel, R. J., & Clarke-Steffen, L. (1997). The possibilities and pitfalls of doing a secondary analysis of a qualitative data set. *Qual Health Res*, 7(3), 408-424.
- Hrabe, D. P. (2001). *Relationship development among chronically ill women in 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Arizona.
- Irurita, V. F., & Williams A. M. (2001). Balancing and Compromising: nurses and patients preserving integrity of self and each other. *Int J Nurs Stud*, 38(5), 579-89.
- Liken, M. A. (1999). Interdisciplinary Geriatric teams: experiences of Alzheimer's family caregivers. *National Academies of Practice Forum: Issues in Interdisciplinary Care*, 1(2), 123-30.
- Lobo, M. L. (1986). Secondary analysis as a strategy for nursing research. In P. L. Chinn (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implementation*. Rockville, MD: Aspen Publishing Co.
- MacAvoy, S., & Moritz, D. (1992). Nursing diagnoses in an oncology population. *Cancer Nurs*, 15(4), 264-70.
- McArt, E., & McDougal, L. W. (1985). Secondary data analysis: A new approach to nursing research. *J Nurs Scholarsh*, 17(2), 54-57.
- McKay, S. (2002). "The problem" of student nurses of Japanese ancestry during World War II. *Nurs Hist Rev*, 10, 1049-67.
- McMurray, A. (1997). Violence against ex-wives: anger and advocacy. *Health Care Women Int*, 18(6), 543-56.
- Messias, D. K. H., Yeager, K. A., Dibble, S. L., & Dodd, M. J. (1997). Patients' perspective of fatigue while undergoing chemotherapy. *Oncol Nurs Forum*, 24(1), 43-8.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ohr, W. K. (1998). Unexpected outcomes of childhoo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Issues Mental Health Nurs*, 19(2), 153-71.
- Montbriand, M. J. (1995). Alternative therapies as control behaviours used by cancer patients. *J Adv Nurs*, 22(4), 646-654.
- Park, P. (1993). What is participatory research?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 In P. Park, M. Brydon-Miller, B. Hall, & T. Jackson (Eds.), *Voices of change: Participatory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p. 1-21). Westport, CT: Bergin & Garvey.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ehm, R. S., & Catanzaro, M. L. (1998). "It's just a fact of life": family members' perceptions of parental chronic illness. *J Fam Nurs*, 4(1), 21-40.
- Serembus J. F., Wolf, Z. R., & Youngblood, N. (2001). Consequences of fatal medication errors for health care providers: A secondary analysis study. *Medsurg Nurs*, 10(4), 193-201.
- Sidenvall, B. (1999). Meal procedures in institutions for elderly people: A theoretical interpretation. *J Adv Nurs*, 30(2), 319-328.
- Steeves, R. H., Kahn, D. L., & Cohen, M. Z. (1996). Asking substantive theory questions of naturalistically derived data. *West J Nurs Res*, 18(2), 418-431.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Szabo, V., & Strang, V. R. (1997). Secondary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ANS*, 20(2), 66-74.
- Szabo, V., & Strang, V. R. (1999). Experiencing control in caregiving. *J Nurs Scholarsh*, 31(1), 71-75.
- Thorne, S. (1994). Secondary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Issues and implications. In J.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263-27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horne, S. (1998). Ethical and representational issues in qualitative secondary analysis. *Qual Health Res*, 8(4), 547-555.
- Volume, C. I., & Farris, K. B. (2000). Hoping to maintain a balance: The concept of hope and the discontinuation of anorexiants medications. *Qual Health Res*, 10(2), 174-187.
- Wiens, A. G. (1998). Preoperative Anxiety in Women. *AORN*, 68(1), 74-88.
- Wilson, D. M. (1992). Ethical concerns in a long-term tube feeding study. *J Nurs Scholarsh*, 24(3), 195-9.
- Wilson, H. S., & Hutchinson, S. A. (1991). Triangulation of qualitative methods: Heideggerian hermeneutics and grounded theory. *Qual Health Res*, 1, 263-276.
- Yamashita, M., & Forsyth, D. M. (1998). Family coping with mental illness: An aggregate from two studies. Canada and United States. *J Am Psychiar Nurs Assoc*, 4(1), 1-8.
- Yi, M. (2003). Secondary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Nurs Inquiry*, 12(1), 82-96.

Secondary Analysis :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Yi, Myung-Sun DNS, RN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article explored issues arising from secondary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and analyzed the results of qualitative secondary analysis studies published in English, focusing on the methodological aspects. **Method:** A total of 29 studies were identified as qualitative secondary analysis studies, retrieving from the CINAHL database from 1982 to 3rd week of April 2003. These studies were analyzed by publication year, research method, and type of approach to secondary analysis. **Result:** The year that the qualitative secondary analysis study first published was 1992 and the number of the studies using secondary analysis has increased after the middle of 1990s. Grounded theory was the one the most frequently used(n=11, 37.9%) and phenomenological study the second most(n=6, 20.7%). In terms of types of approach, fifteen studies(51.7%) focused on the specific concepts that were not explored in the primary studies. Nine(31.0%) focused on the specific types of participants. Six were aimed to integrate contexts or perspectives to generate more general and abstract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ill stimulate methodological discussion of qualitative secondary analysis and activate qualitative studies using secondary analysis.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condary analysi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 Myung-sun DNS, R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Chongno-gu Yongon-dong Seoul, Korea 110-799
Tel: -82-2-740-8829 Fax: 82-2-765-4103 Email: donam@sun.ac.kr